

WORLD ARTIST SERIES IV  
'니콜라이 데미덴코'

# Arts Friend 12

Ulsa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December 2016  
Vol. 200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6  
December

12

# Arts Friend

Ulsa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Vol. 200

## Special Performance

04 / 기획공연 I  
WORLD ARTIST SERIES IV  
'니콜라이 데미텐코'

06 / 기획공연 II  
12월 모닝콘서트  
리차드 로 & 고희안의  
JAZZ TALK CONCERT



08 /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A Winter Story

10 /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2016 송년음악회

12 /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크리스마스 캐롤의 향연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6년 12월호 통권 200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T. 052-226-8242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김광래

기획·편집 박용운, 이은경, 정유진, 방효덕, 김아람, 조은경,  
권혁민, 이순삼, 김내영, 남현정, 서동원

디자인·제작 디자인 큐브 T.052-272-2842

## Art & Performance

## Art & Performance

### 14 / 울산시립무용단

2016 송년공연  
'춤, 해후 邂逅'

### 16 /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4회 정기공연  
2016 송년음악회

### 18 /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34회 정기공연  
2016 송년음악회



### 20 / 김진홍의 이탈리아 통신

Firenze

### 23 / 예술을 말하다 I

오페라 '오텔로'

### 26 / 예술을 말하다 II

영화보다 공연이 먼저라고!!

### 28 / 예술을 말하다 III

코생의 <백과전서> 표지그림

### 30 / 김용진의 Piano Forte

겨울 그리고 러시아

## Art & Story

## Information

32 / 12월 공연 · 전시 가이드

39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43 /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 N I K O L A I D E M I D E N K O

## PROGRAM

**도메니코 스키타리** / 건반을 위한 소나타

*Domenico Scarlatti / Sonatas for Keyboard*

*in D Major, K.119(L.415)*

*in F Major, K.82(L.30)*

*in g minor, K.88(L.36)*

*in B-flat Major, K.439(L.47)*

*in f minor, K.19(L.383)*

*in C Major, K.225 (L.351)*

*in c minor, K.56 (L.356)*

*in D Major, K.145(L.369)*

*in C Major, K.423(L.102)*

*in A Major, K.404(L.222)*

*in G Major, K.455(L.209)*

*in G Major, K.454(L.184)*

## INTERMISSION

**프란츠 슈베르트** / 피아노를 위한 악흥의 순간 중, D.780(Op.94)

*Franz Schubert / Moments musicaux for Piano, D.780(Op.94)(excerpts)*

*Andantino in A-flat Major*

*Moderato in c-sharp minor*

*Allegro vivace in f minor*

**세자르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M.8(피아노 연주, 알프레드 코르토 편곡)

*César Franck /*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M.8(arranged for Piano by Alfred Cortot)*

*Allegretto ben moderato*

*Allegro*

*Recitativo - Fantasia. Ben moderato - molto lento*

*Allegretto poco mosso*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WORLD ARTIST SERIES IV

# 니콜라이 데미덴코 Piano

2016. 12. 9(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3만 원(유료회원 30%) / 8세 이상 관람가  
052-275-9623 ucac.or.kr



#### 니콜라이 데미덴코 Nikolai Demidenko (Piano)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데미덴코는 베토벤, 브람스,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등 협주곡의 거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주자이며 그의 열정적인 연주, 비르투오스적인 기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특한 개성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니콜라이 데미덴코는 유리 테르미카노프, 로저 노링턴,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샤를 뒤투아,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앤드루 데이비스 등 세계 유수의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추었으며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로열 필하모닉, BBC 웨일즈 내셔널 오케스트라, 얼스터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퀸즈랜드 심포니, KBS 교향악단, 싱가포르 심포니,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스페인 국립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예블레 심포니, 덴마크 국립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2015/16시즌에는 퀸즈랜드 심포니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으며 상주음악가로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및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최근 주요 공연으로는

베오그라드 필하모닉,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RAI(이탈리아 방송협회) 심포니, 갈리시아 심포니, 퀸즈랜드 심포니, 실리콘 밸리 심포니, 빌바오 심포니, 플랜더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있다.

이번 시즌에는 베오그라드 콜라락 콘서트홀, 알리칸테, 빌바오, 바르셀로나 카탈라냐 음악당, 모스크바음악원 그레이트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이스탄불, 그리고 호주에서 독주회가 있다. 그는 또한 위그모어홀, 바비칸센터 등 영국 주요 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2017년 2월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니콜라이 데미덴코는 40여장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특히 하이페리온에서 런던 필하모닉과 녹음한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음반,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된 메트너와 2대의 피아노 음반, BBC 뮤직 매거진 올해의 베스트 음반에 선정된 라흐마니노프 음반 등 2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여 언론과 평단에 호평을 받았다. 2008년 가을에는 오닉스 클래식에서 24개의 전주곡을 포함한 쇼팽 CD를 발표하였고, 이 음반은 매년 새로 발매된 음반을 대상으로 하는 2010 MIDEM 스페셜 쇼팽 어워드에서 수상하였다.

러시아 출신의 니콜라이 데미덴코는 그네신 국립음대에서 아나 칸토르를 사사하였고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드미트리 바시키프를 사사하였다. 그는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였으며, 2014년 영국 서리 대학교로부터 그의 음악과 대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 12월 모닝콘서트 리차드 로 & 고희안의 JAZZ TALK CONCERT

2016. 12. 20(화) 11:00

음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원(유료회원 30%, 무료회원 10%, 단체 20%)  
8세 이상 관람가  
052-275-9623 ucac.or.kr

# JAZZ TALK CONCERT

# 리차드 로

Richard Rho  
FROM  
PRELUDE



# Richard Rho & 고희안

재즈 씬에 비로소 등장한  
대중과 소통하는 재즈 콘텐츠

“낮설고 부담스런 재즈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쾌한 재즈 토크 콘서트”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올해 마지막 모닝콘서트는 재즈 토크 콘서트가 장식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밴드인 프렐류드의 두 멤버인 리차드로 (색소폰)와 고희안(피아노)이 풀어내는 재즈 토크 콘서트다.

올해 3월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재즈 씬에 비로소 등장한 대중과 소통하는 재즈 콘텐츠”라는 평가를 얻었다. 보통의 재즈 공연처럼 재즈를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 팬이 아니더라도 재즈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재즈사의 명장면들을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과 희귀한 영상들로 보여준다. 또한 각 시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명곡들을 색소폰과 피아노의 듀오로 들려준다.

리차드 로와 고희안 두 뮤지션은 버클리 음대 재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들로 결성된 프렐류드의 창단 멤버로 만나 인연을 맺은 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외를 넘나드는 수많은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Sony 레이블로 모두 여덟 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 날 공연에서는 미국 노예의 노동요인 블루스와 피아노로 연주하는 춤곡인 렉 타임으로부터 재즈로 듣는 ‘장미빛 인생’, 프랭크 시나트라와 ‘마이 웨이(My Way)’, 재즈와 국악의 크로스오버 ‘밀양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멋지게 편곡한 캐럴 메들리를 함께 선사한다.

#### 고희안, 리차드 로



리차드 로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과 폴 데스몬드(Paul Desmond)가 녹음 중 휴식 시간에 우연히 악상을 얻어 함께 만든 ‘테이크 파이브(Take Five)’는 재즈사의 명곡이자 명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리차드 로와 고희안의 듀오의 재즈 토크 콘서트도 일상 속의 짧은 휴식, 그 속에서 얻은 고정관념을 깨는 창조적 파격(5/4박자) 그리고 집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재즈라고 하면 보통 낯설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리차드 로의 재즈톡>은 재즈를 처음 듣는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쾌한 재즈 토크 콘서트입니다”  
(리차드 로)

“재즈는 자유로운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순 없지만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재즈죠.”  
(고희안)

#### PROGRAM

Opening : Vincent Youmans & Irving Caesar, Tea for Two

미국 노예의 노동요, 블루스 : Blues Improvisation

재즈의 본고장 뉴 올리언스와 Rag Time : Scott Joplin, Maple Leaf Rag (12<sup>th</sup> Street Rag)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 : Louis Armstrong, La Vie En Rose

미국 대중음악의 아이콘, 프랭크 시나트라 : Paul Anka, My Way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냉정하게 지적으로, 쿨 재즈 : Dave Brubeck & Paul Desmond, Take Five

Closing : 민요, 밀양 아리랑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8PM. 6th DEC. 2016  
Conductor. Lee Jong Jin  
Cellist. Lee Dong Woo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 A Winter Story

2016. 12. 6(화)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할인 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공연문의 Tel. 275-9623~8 www.ucac.or.kr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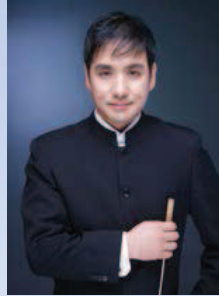


## 추운 겨울에 울리는 부드럽고 따스한 감동의 클래식 교향악적 구성과 극적인 감각으로 탄생한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겨울을 맞이하여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선사하는  
A Winter Story!

겨울하면 떠오르는 차갑고, 쓸쓸한 겨울의 풍경이  
아닌 부드럽고 따스한 분위기를 담은 클래식  
명곡들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지휘와 풍부한 해석력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지휘자 이종진,  
그리고 중후한 음색으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이동우를 초청하여 선사하는 서정적인 무대!



풍부한 음악성과  
깊이있는 해석,  
젠틀한 마에스트로

지휘자 이종진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매력적인 첼리스트

첼리스트 이동우

### Program

J.스트라우스 / 겨울의 즐거움  
J. Strauss / Winter lust

발트토이펠 / 스케이트 왈츠  
Waldteufel / Skater's Waltz

차이콥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33(첼로, 이동우)  
Tchaikovsky /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Cello Lee Dong Woo)

차이콥스키 / 발레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20a  
Tchaikovsky / Ballet Swan Lake suite op.20a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 2016 송년음악회

2016. 12. 23(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는 2016년 송년음악회가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화려한 선율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

# 2016 The End of Year Concert



지휘 / 송유진



트럼페티스트 / 성재창



## PROGRAM

- 글린카 / 환상곡 “카마린스카야”  
Glinka / Fantasy ‘Kamarinskaya’
- 아르투니안 / 트럼펫 협주곡 (트럼펫 성재창)  
Arutiunian / Concerto for trumpet and Orchestra  
〈Trumpet / Sung Jae-chang〉  
- 휴식 -
- 리야도프 / 키키모라 작품63  
Liadov / Kikimora Op.63
- 리야도프 / 바바야가 작품56  
Liadov / Babayaga Op.56
- 림스키코르사코프 / “러시아 부활제” 서곡  
Rimsky-Korsakov /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
- 차이콥스키 / 슬라브 행진곡 작품31  
Tchaikovsky / Slavonic March Op.31

좌석 전석 1만원

할인 회원(30%), 초·중·고(50%), 단체 10인 이상(20%)

관람등급 초등학교 이상

공연문의 Tel. 275-9623~8 <http://www.ucac.or.kr>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의 향연

Christmas Carol



2016. 12. 20(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합창 / 울산시립합창단

# Christmas

## >>> 지휘 / 민인기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전공
- New York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합창지휘 박사
- 프리마돈나 앙상블, 광주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청주시립합창단, 당진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 등 객원지휘
- 북미음악대학협의회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
-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역임
-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 PROGRAM

- Hodie : A Christus Fanfare / Jay Althouse
- Hodie : Christus Natus Est / Jan Pieterzoon Sweelinck
- CHRISTMAS CANTATA / Daniel Pinkham
- Christmas Choral Fantasy / Craig Courtney
- A Christmas Celebration / Donald Moore
- Christmas Carol / Ola Gjeilo
- O Come, O Come Emmanuel
- In the break Midwinter
- God Rest you merry Gentlemen
- Away in a Manger
- The Holy and the Ivy
- The First Noel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칸타타 등 귀에 익은 캐롤들을 모아

다양한 무대연출을 통해 축복과 나눔의 음악회를 기획!!

지휘 민인기

합창 울산시립합창단

티켓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울산시립  
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2016 송년공연

# 축하, 해돋이



2016. 12. 16(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전석 1만원 할인 | 회관회원 30% 단체 20% 예매 및 문의 | <http://www.ucac.or.kr> 275-9623~8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시립예술단  
프로그램 | 시나위 합주, 축원무, 울산학춤, 살풀이춤, 진도북춤, 노래곡「쑥대머리, 공항의 이별」, 태평무, 장고·소고춤

김성수, 김미자, 무용협회 등  
지역 무용인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선사하는  
신명 넘치는 전통 춤과  
은은한 국악 선율의 대향연으로  
연말 장식하면서 **아듀~ 2016~**



재구성·지도 / 박정은



특별출연 / 양성옥



진행 / 박애리



김미자



김성수



(사)한국무용협회 울산지회



(사)울산학춤보존회

### 박애리의 재치있고 입담 넘치는 진행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 조교 양성옥 교수 특별출연 !!

아름다운 춤으로 전통의 향기를 전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6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유명 국악인 박애리의 입담 넘치는 진행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 조교 양성옥 교수를 비롯한 지역 춤꾼 김성수, 김미자, (사)한국무용협회 울산지회, (사)울산학춤보존회가 함께 하는 2016송년공연 <춤, 해후邂逅> 무대를 연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유럽에서의 초청 공연을 비롯해 다사다난 했던 한 해의 끝을 더욱 화려하고 신명 넘치게 장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양성옥

명인이 선사하는 '태평무'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무용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춤꾼 김성수, 김미자 등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춤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시간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생생한 국악연주로 무용 공연의 완성도를 한 층 끌어올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연주팀이 무대에 올라 은은하고 따뜻한 국악 관현악 선율의 '시나위 합주'로 감동을 전하며 우리소리와 춤이 어우러지는 2016 송년공연 <춤, 해후邂逅>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한다.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4회 정기공연

2016


# 송년음악회

2016 Adieu  Concert



2016.12.17.(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만 5세 이상 입장 가능

전석 1,000원 공연문의\_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www.ucac.or.kr](http://www.ucac.or.kr) 주최\_  울산광역시 |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2016 ADIEU CONCERT



지휘 / 송유진

청소년들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에  
초대합니다!

## PROGRAM

- 스트라우스 II / 박쥐 서곡  
(Johann Strauss II / Die Fledermaus Overture)
- 특별출연\_ 옥현중학교 오케스트라  
- 태양의 후예 OST - 편곡 양상진  
- A Ketelbi / In a Perisan Market
- 하이든 / 교향곡 제45번 올림라단조 "고별"  
(Franz Joseph Haydn /  
Symphony No.45 in f# minor "Farewell")



특별출연 / 옥현중학교 오케스트라 (지휘 / 여수아)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34회 정기공연

# 2016 송년음악회

일 시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5시  
장 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000원  
관람등급 만 5세 이상 입장가



지휘 / 한성용



테너 / 장지현





특별출연 / 울산YMCA소년소녀합창단 (지휘 / 홍영상)

# PROGRAM

## 고전합창음악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 acc. 김나리
- Sancius ..... F. Schubert
- Cantate Domino ..... Daniel Friderich
- O Magnum Mysterium ..... L.T Vittoria

## 초청 성악가의 무대 테너 장지현

- Una furtiva lagrima(남몰래 흐르는 눈물) from Opera "L'elisir d'amore"(사랑의 묘약) ..... G. Donizetti
- 뱃노래..... 조두남

## The phantom of the opera Highlight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 acc. 김나리
- The phantom of the opera(오페라의 유령)
- Think of me(나를 생각해 줘요)
- All I ask of you(당신께 바라는 것)
- Angel of music(음악의 천사)
- Wishing you were somehow here again(당신이 돌아와 준다면)
- The point of no return(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 울산 Y.M.C.A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지휘 홍영상

- acc. 김나리
- 꿈꾸어 보아요 ..... 이현철
- 보리울의 여름 ..... 이영훈 곡, 박지영 편곡
- 캔디 ..... 장용진 곡, 문현주 편곡

## Les Miserables Highlight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 acc. 김나리
- At the end of the day(그날의 끝에서)
- On my own(나홀로)
- One day more(어느날 더욱)





## 낭만과 예술의 도시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우다.

'꽃'(Fiore)이라는 의미가 담긴 도시 피렌체 (Firenze)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주도이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 있어 걸어서 사색하기 좋은 도시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탈리아 예술의 수도'라는 피렌체의 별칭이 도시 곳곳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도시의 기원은 BC 2세기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금융업과 무역업이 발달하여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14~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미켈란젤로, 단테, 지오토,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등 쟁쟁한 거장들이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예술가들의 걸작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

역사지구 전체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유적들 뒤에는 '메디치' (Medici)라는 이름이 늘 따라 다닌다. 토스카나 지방의 부호이자 실세였던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와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금융업을 통해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했던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였다. 15세기 중반 건축가들을 불러들여 팔라초

# 김진흥의 Italia 통신 Firenze

우피치 미술관



##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10년간 헤어졌던 연인의 약속의 장소로 알려진 피렌체 두오모 성당

스트로치와 팔라초 루첼라이 같은 멋진 건축물들을 완성하게 했고, 이탈리아 최고 미술관으로 꼽히는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 등 여러 건축물들을 짓게 했다.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등 화려한 작품을 자랑하는 우피치 미술관은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을 보여주기 위해 공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우르비노 공작과 공작 부인>,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성가족>, 라파엘로의 <방울새의 성모>, 그리고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들 수 있다.

두오모로 잘 알려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Cattedrale di Santa Maria del Fiore)은 피렌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피렌체 시민들이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종교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건설했기 때문인데 1296년 공사를 시작하여 166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1462년에 완성되었다. 피렌체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고 웅장하며,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한다.

두오모 지역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상점가를 지나 남쪽으로 걷다 보면 넓은 베키오 궁전이 있는 시노리아 광장을 지나는데 지난 수 세기 동안 도시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다.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산책 코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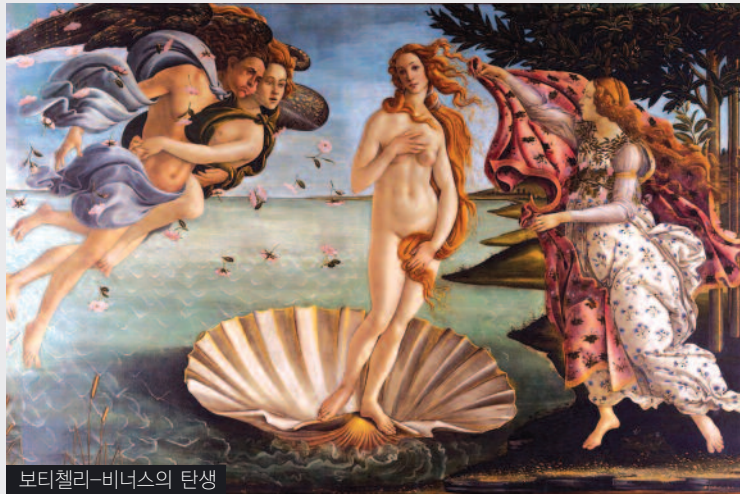
시노리아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개의 조각상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다비드> 상과 피렌체 시민들이 '흰 거인'으로 부르는 <넵투누스> 분수, 도나텔로의 작품 <사자> 상, 잠볼로냐의 작품 <사빈 여인의 강간>, 첼리니의 작품 <페르세우스> 등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 조각상들을 만날 수 있다.

시노리아 광장을 상징하는 건물은 94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 있는 베키오 궁전이다. 베키오 궁전은 1314년에 완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관공서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피렌체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렌체 중앙시장은 일명 '도둑시장'으로도 불린다. 1874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피렌체 대표 재래시장이다. 먹을거리뿐 아니라



보티첼리-봄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가죽 제품 상점으로 유명하다. 가죽 산지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는 어디에서나 가죽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품목과 디자인이 다양한 곳은 단연 피렌체다. 팔찌, 지갑, 가방, 신발 등 가죽 세공품에서부터 의류,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 피렌체 지방의 전통음식 비스테까 알라 피오렌티나와 슈퍼 토스카나 레드 와인

이렇게 피렌체 곳곳을 다니며 여행을 하다보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른바 피렌체 맛집을 찾게 된다. 비스테까 알라 피오렌티나(bistecca alla fiorentina)는 토스카나(Toscana)주 피렌체 지방의 전통요리로 이탈리아식 티본 스테이크인데 단연 이것을 맛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올리브유와 후추로 간을 맞춘 이 티본 스테이크는 피렌체의 명물 중 하나다.

소복한 배에 넉넉한 미소의 현지 이탈리아 아저씨가 내어주는 스테이크는 크기에서 한번 놀라고 맛에서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T-자 뼈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육질을 원한다면 안심 쪽을, 고소하고 씹히는 맛을 원한다면 등심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Firenze

비스테까 알라 피오렌티나를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토스카나 레드 와인이다.

예로부터 토스카나 지역은 포도 농사가 잘 되어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데 이탈리아 지역 중에서 최고의 레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끼안티(Chianti)를 비롯해 끼안티 클라시코(Chianti Classico), 비노 노빌레 디 몬테폴차노(Vino Nobile di Montepulciano),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Brunello di Montalcino), 가르미냐노(Carmignano)와 화이트 와인 베르나차 산 지미냐노(Vernaccia San Gimignano) 등 6개의 D.O.C.G.급 와인이 생산된다.

끼안티는 산조베제가 최소 75% 이상 사용되며 카나이올로, 트레피아노, 말바지아 등이 혼합된다. 끼안티를 양조할 때 고베르노(governo)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에 포도의 일부(5~10%)를 수확하여 바람에 건조시켜 포도의 당도를 높인다. 약 1개월 후 이것을 착즙하여 정상적 방법으로 발효시킨 후 와인에 첨가해 재발효시켜 신선하고 더욱 진한 와인으로 만든다. 끼안티 클라시코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중소 와인업자의 협동조합(consorzio)인 검은 수탉에 금박문자를 새긴 조합마크가 유명하다.

또한 DOC 규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품종을 선택하여 만든 슈퍼 토스카나 와인으로는 사시카이아(Sassicaia), 티냐넬로(Tignanello), 오르넬라이아(Ornellaia), 솔라이아(Solaia) 등이 유명하다. 슈퍼 토스카나 와인은 토스카나 지역



Bolgheri sassicaia

에서 생산되지만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등의 보르도 포도품종을 블렌딩 하고 프랑스 와인 제조 방법을 도입한 와인 중 그 품질이 우수한 와인을 의미한다. 1970년대 끼안티 지역에 경제적인 슬럼프가 겹치면서 이탈리아의 와인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토스카나 지방의 몇몇 혁신적인 와인 메이커들은 6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포도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쉬라 등의 포도를 이탈리아 포도 품종인 산조베제와 블렌딩 하거나 산조베제를 배제하고 보르도 품종의 포도로만 와인을 제조하였다. 자국의 와인제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블렌딩 방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조법이었다. 한편, 프랑스식 와인 제조법인 작은 용량의 프랑스식 오크통을 도입하는 등 와인제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된 와인을 와인 평론가와 언론, 와인 잡지들이 극찬하였고 <슈퍼 토스카나>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최초의 슈퍼 토스카나 와인인 1968년 테누타 산 귀도(Tenuta San Guido) 사의 사시카이아(Sassicaia) 와인이 발매되자마자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1978년 영국의 <Decanter>라는 잡지에서는 1972년산 사시카이아가 최고의 와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시카이아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 80%, 카베르네 프랑 20%로 블렌딩 되며 현재 D.O.C. 등급까지 승격되었다. 현재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경매시장의 최고가 와인은 사시카이아로 알려져 있으며 60ha에서 매년 10만 병 정도만 생산되고 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 피렌체의 야경을 감상하며 슈퍼 토스카나 와인을 한번 음미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Bistecca alla fiorentina

오페라  
**OPERA**  
**Otello**  
 오텔로



▲ ROH Tristram Kenton 2012

개설

베르디는 '레퀴엠' (1874)을 발표한 이래 산타가타 장원에 묻혀 마치 작곡을 잊은 사람처럼 외부와 소식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다. 이런 베르디에게 다시금 창작의욕에 불을 지핀 이는 아리고 보이토(Arrigo Boito 1842~1918)이다. 이미 오페라 '메피스토펠레스'를 발표한 작곡가이며 시인, 대본가, 소설가인 보이토는 자신이 오페라를 작곡하고 싶어 셰익스피어의 비극 '베네치아의 무어인 오셀로 Othello, The Moor of Venice'를 오페라 대본으로 각색했다.

하지만 보이토는 자신의 작곡 능력으로는 원하는 음악을 작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880년 칩거 중인 베르디에게 '오텔로'의 대본을 들고 가서 끈질기게 설득한다. 베르디는 그동안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비극 '리어 왕'을 오페라로 만들려는 구상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나 보이토의 대본을 보고는 '오텔로' 작곡에 착수했다. 베르디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6년의 세월이 소요 되었다.

작곡 속도가 빨랐던 베르디로서는 그 사이에 '시몬 보카네그라'와 '돈 카를로' 개정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일 정도로 오랜 기간이 걸렸다. 베르디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새롭고 야심적으로 이 오페라에 전념한 것이다. 1886년 가을, 작곡을 완성하였으나 베르디 자신이 감수하면서 수많은 연습을 거듭하여 이듬해 2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이 이루어진다. '오텔로'의 초연은 베르디가 셰익스피어 비극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 '맥베스'를 쓴 지 정확히 사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



▲ 보이토와 베르디

## 초연과 작품 특성

초연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청중들이 베르디가 머물던 호텔로까지 몰려와 밤늦게 베르디를 연호하면서 몇 번이나 발코니로 불러낼 정도였다. 베르디는 로시니, 치마로사 이래 내려오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혁신하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작품을 선보였다. 일군의 비평가들은 베르디가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현대적 화성을 도입한 점을 들어 지나치게 바그너를 의식해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잃어버렸다는 평도 내어 놓았다. 현대음악을 떠올리는 난해한 음악이 군데군데 포진해있고, 언뜻 보면 바그너적인 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흐르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은 이 오페라를 접한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탈리아 오페라에 진정으로 진한 생명을 불어넣은 베르디의 위대한 업적은 특히 ‘오텔로’에 응축되었다. ‘오텔로’가 초연될 당시에는 바그너의 음악극이 유럽 오페라계를 지배할 때였다. 이탈리아 사람들을 ‘오텔로’로 이탈리아가 독일에 승리했다고 환호하였다. 라스칼라극장 초연이후 이탈리아의 15개 극장에서 공연되면서 그 인기를 이어나갔다. 그 후 베르디는 파리오페라의 ‘오텔로’ 공연 요청에 맞추어 약간 손질하고 발레장면을 삽입하여 1884년 10월 파리에서 공연하였다. 셰익스피어는 1566년 이탈리아 문인 지랄디 친티오(Giraldi Cinthio 1504~1573)가 발표한 ‘오텔로’를 바탕으로 비극 ‘오셀로’를 집필했다.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토대로 했고, 로시니의 오페라 ‘오텔로’는 친티오의 원작을 따른 작품이다. 대본가 보이토는 셰익스피어 원본을 가지고 음악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많은 부분을 과감히 생략했다. 원작의 1막에 등장하는 오셀로와 데스데모나의 만남과 결혼, 데스데모나 아버지 브러벤쇼의 반대 등 베니스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사건이 사이프러스 섬에서만 일어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보이토는 원작 1막의 내용을 오페라 1막에서 주인공들의 대사에서 모두 담아내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원본보다 더 압축적이면서 응집력을 가지게 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글/ 송종근

▼ 데스데모나와 오텔로



▼ 메트로폴리탄오페라







▲ Javier del Real

## 즐거리 Otello | 전체 배경 : 사이프러스 섬 |

**1 제1막** | 전투에서 승리한 사이프러스 총독 오텔로가 폭풍을 헤치고 무사히 귀환하여 백성들은 환호한다. 그러나 오텔로의 부하 장교 두 명은 축하할 기분이 아니다. 오텔로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사모하는 로데리고는 오텔로가 전투에서 패배하기를 바랐고, 이아고는 자신이 아닌 카시오가 승진한 것에 불만이다. 오텔로는 이아고가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고 모함을 잘해서 진급시키지 않았으나 이아고는 자신의 문제는 아랑곳 않은 채 반감을 갖는다. 이아고는 카시오에게 진급 축하한다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술 취한 카시오가 사소한 일로 어떤 귀족을 칼로 찌른다. 이 소동 때문에 카시오는 직위를 박탈당한다.

**1 제2막** | 오텔로를 멸시하고 증오하는 이아고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 이아고는 카시오에게 데스데모나를 통해 복직을 부탁해보라고 한다. 카시오는 데스데모나를 만나러 가고 이 두사람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본 오텔로는 내용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의아해한다. 카시오가 데스데모나에게 복직을 부탁하는 모습이였다. 이때 오텔로에게 이아고가 접근해서 두 사람이 예전부터 친했고 요즘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 의심이 가도록 오텔로에게 말을 흘린다. 그런 차에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의 복직을 부탁하자 오텔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급기야는 아내의 정절까지 의심한다. 오텔로는 자신이 무어인이라는 자격자심을 언제나 품고 있다.

얼굴이 상기되어 땀을 흘리는 오텔로를 보고 데스데모나가 딸기가 수놓인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아주려고 하자 오텔로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진다. 당황한 데스데모나는 오텔로를 가만 두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안채로 들어간다. 이아고의 아내인 시녀 에밀리아가 손수건을 집어 들자 이아고가 손수건을 낚아챈다. 오텔로가 데스데모나와 카시오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이아고를 다그치자, 그는 카시오가 잠결에 '데스데모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불같은 성격의 오텔로가 카시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이아고는 데스데모나에게 오텔로가 선물한 딸기가 수놓인 손수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1 제3막** | 오텔로는 자신이 선물한 손수건이 어디 있느냐고 데스데모나를 추궁한다. 데스데모나가 손수건을 찾아보지만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텔로는 손수건을 잃어버린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 때맞춰 카시오가 들어와 웬 예쁜 손수건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다고 오텔로에게 말한다.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이다. 이아고가 나서서 카시오를 처치하겠다고 말하고 오텔로는 진급을 약속한다. 마침 베네치아 사절단(당시 사이프러스 섬은 베네치아의 통치)이 와서 승전으로 인해 오텔로가 승진했음을 알려준다.

**1 제4막** | 데스데모나의 침실. 그녀는 에밀리아에게 침대 시트를 결혼 초야처럼 하얀 것으로 갈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 이 시트에 싸서 묻어달라고까지 말한다. 오텔로가 들어와 카시오와의 부정에 대해 비난한다. 데스데모나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수록 오셀로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다. 오텔로는 결국 분함을 참지 못하고 데스데모나의 목을 졸라 죽인다. 이때 시녀와 이전의 총독이 들어와 카시오가 로데리고와 결투를 하다가 로데리고를 죽였는데 로데리고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아고의 음모를 모두 고백했으며, 데스데모나와 카시오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알려준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오텔로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비통해하며 단도로 자살한다.

### 주요 아리아

- '밤의 어둠 속에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Gia nella notte densa'  
(1막, 오텔로&데스데모나)
- '이아고의 신조: 나는 잔인한 신을 믿는다  
Credo in un Dio crudel'  
(2막, 이아고)
- '주여! 제게 온갖 치욕을 주시는군요  
Dio! mi potevi scagliar'  
(3막, 오텔로)
- '버들의 노래 Mia madre aveva una  
povera ancella & Ave Maria'  
(4막, 데스데모나)

# 영화보다 공연이 먼저라고!!

최근 국내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면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들이 많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 <보디가드> 등이 대표적인데요. <킹키부츠>는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만들었고, <보디가드>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 제작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나 드라마는 꾸준히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펼쳐지는 무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영상 매체처럼 정교하거나, 반대로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제약을 연극적인 상상력과 관객과의 암묵적인 약속을 통해 무대에서만 가능하도록 드러내는 것이 공연예술의 재미이기도 하죠. <킹키부츠>와 <보디가드> 모두 영화를 무대로 옮기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 반대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옮기는 작업도 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큰 인기를 얻은 영화 가운데는 공연의 성공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작품도 있는데요. '영화보다 공연이 먼저인 작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클로저>, <날 보러 와요>에 이어 몇 편을 더 소개해 볼까요?

## 뮤지컬 <드림걸즈>

비운세의 'Listen'이 단박에 떠오르는 영화 <드림걸즈>. 최근에 뮤지컬 <드림걸즈>를 봤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영화가 공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드림걸즈>는 영화에 앞서 지난 1981년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초연됐습니다. 당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쇼 뮤지컬로 손꼽히며 이듬해 토니상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안무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죠.

뮤지컬 <드림걸즈>는 1960년대 흑인 R&B 여성 그룹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스(Diana Ross & Supremes)'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백인 중심의 음악이 성행했고, 흑인 음악이라 하더라도 백인 취향에 맞춰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컬 그룹 '프리메이즈'로 활동하던 흑인 소녀들이 1961년 음악의 성지로 불리는 모타운 레코드사와 계약하면서 '슈프림스'로 붐을 일으켰는데요. 여성스러운 패션에 R&B는 물론 달콤한 팝 발라드까지 소화하며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무려 12곡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렸습니다. 당시 '비틀즈'의 라이벌로 언급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나 뮤지컬에는 R&B에서 재즈, 부기, 디스코, 소울, 팝 발라드까지 더해지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수들이 참여한 영화 <드림걸즈>는 황홀한 정도로 즐길 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흑인 음악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브로드웨이 초연 때는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국내 라이선스 무대로 마련된 <드림걸즈>를 보고 조금 아쉬움을 느낀 관객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가창력만으로 이 작품에 도전하기는 힘든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곡의 느낌이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국내에서 뮤지컬 <드림걸즈>가 공연될 때는 흑인 음악의 기본인 소울과 그루브를 바탕으로 한국 관객들이 좋아하는 고음 영역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국화'



# Musical

작업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여느 뮤지컬에서 감상하기 힘든 여배우들의 색다른 가창력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인 건 확실합니다.

## 뮤지컬 <김종욱 찾기>

지난 2010년 배우 공유, 임수정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 <김종욱 찾기>. 첫사랑 '김종욱'을 찾아 나선 여자와 그 첫사랑을 찾아주려는 남자가 만들어가는 사랑이야기죠. 그래도 <김종욱 찾기>는 영화의 원작이 뮤지컬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 초연돼 올해 10주년을 맞아 장기 공연 중인 <김종욱 찾기>는 대학로 로맨틱 코미디물의 대명사로 꼽히는 창작 뮤지컬인데요. 오만석, 엄기준, 김재범, 김무열, 신성록 등 지금은 무대와 영상 매체를 오가는 쟁쟁한 스타 배우들이 '김종욱'으로 열연했습니다. 뮤지컬의 극을 쓰고 연출을 맡았던 장우정 연출이 영화까지 직접 만들어 영화 <김종욱 찾기>는 카메오로 출연한 인기 뮤지컬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소극장 공연으로 쓰인 작품이었던 만큼 무대로 <김종욱 찾기>를 접했던 팬들은 영화가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을 법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단 세 명의 배우만 등장하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서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은 '김종욱' 뿐입니다.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21명에 달하는 수많은 나머지 인물을 연기하는 멀티맨이 있을 뿐이죠. 인물마다 배우를 따로 쓸 수 없는 공연, 특히 소극장 무대에서는 한 배우가 두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게는 수십 명을 연기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목소리만 바뀌어서, 때로는 손만 내밀고도 한 사람을 표현해내죠. 무대에서만 허용되는, 배우와 관객들만 알고 있는 상상의 세계랄까요? 그리고

이것이 탄탄한 대본을 뛰어넘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재미는 영화의 화려한 캐스팅보다 관객들을 웃게 하니깐요.

## 뮤지컬 <그리스>

그리스? 유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Greece'가 아니라 'Grease' 거든요. 그리스(Grease)는 '머리에 바르는 포마드 기름'을 의미하는데, 1950년대 새로운 자유를 표방하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패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나오는 남학생들의 패션도 몸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가죽점퍼, 그리고 한껏 힘주어 쓸어 넘긴 번지르르한 머리가 눈에 띄죠. <그리스>는 1950년대 10대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입니다. 1978년 개봉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턴 존 주연의 영화 <그리스>로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뮤지컬은 영화에 앞서 1972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습니다.

뮤지컬을 보지 않았고, 스토리를 몰라도 <그리스>의 명장면 한 컷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 정우성과 고소영 씨가 나왔던 모 의류 CF에서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남녀 그룹이 'Tell Me More'라고 노래하며 춤추던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뮤지컬 <그리스>의 한 장면입니다. 'Summer Nights', 'Greased Lightnin', 'Those Magic Changes' 등 <그리스>의 넘버 역시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죠. 이렇듯 뮤지컬 <그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는 춤과 노래가 함께 하는데, 대부분 군무로 펼쳐지는 만큼 그 흥겨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물들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는 극의 재미를 더하죠.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조금은 촌스러운 이 작품이 21세기에도 인기라는 점은 아이러니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배우도, 이 작품을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관객도 '젊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춘의 열정이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이밖에도 <헤어스프레이>, <스위니 토드>,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위 호스> 등은 모두 영화에 앞서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 역시 무대에서 먼저 공연됐고요. 영화와 공연은 매커니즘이 다른 만큼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전혀 다르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작품이라 생각하고 관람하시면 각기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글/ 윤하정



도판 2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

# 코서캥의 <백과전서> 표지그림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로코코의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계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계몽사조는 개개인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사고를 통한 진보를 믿은 사상운동으로 요약됩니다. 영어로는 Enlightenment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풀어보면 빛(light)을 비추어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뜻이지요.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빛과 이성(logos)을 동일시해왔습니다. 유명한 성경구절인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에서 말하는 ‘말씀’도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주는 신적인 이성을 뜻한다고 하니 유래가 깊지요. 계몽사조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이는 기존의 기독교적 신 중심적 사고와의 결별을 암시합니다.

이런 시대정신은 <백과전서>의 출판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장 잘 반증됩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공동 책임 편찬을 맡고, 300여명에 달하는 필자들이 2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만들어 낸 공동지성의 결과물인 <백과전서>는 단순히 갖가지 지식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인간 지성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몽사상의 집약체였습니다. 인터넷만 접속해도 전 세계의 정보를 쉽게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학문과 지식의 접근이 제한적이던 시대에 대중을 위해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백과전서>의 글은 1751년에서 65년에 걸쳐 17권이 출판되었고, 이와 함께 동판화 도판이 1762년부터 1772년 사이에 11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교회와 당국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총 28권 중 11권이 도판본일 정도로 이미지가 많은 게 독특한데요, 이렇게 도판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단순한 삽화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도판 1 <백과전서>의 원본

## <백과전서>의 원래 제목을 풀면 “백과전서, 혹은 과학과 예술, 기예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입니다

그렇다면 <백과전서>의 의미를 함축한 표지 그림도 한 번 눈여겨볼만 하지 않을까요. <백과전서>의 원래 제목을 풀면 “백과전서, 혹은 과학과 예술, 기예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책의 성격을 담아내는 표지 그림을 제작하는 중요한 작업은 당연히 최고의 화가가 맡아야겠지요. 밑그림을 그린 샤를-니콜라 코생(Charles-Nicolas Cochin)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당시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화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리’의 신전에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 예술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가치나 관념들을 의인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화와 성경, 고전문학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학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18세기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책 표지에도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기둥의 머리 부분이 양머리처럼 둥글게 말린 이오닉 양식의 신전은 진리의 성소입니다. 그림의 상단 중앙에는 얇은 베일을 쓴 진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일로도 가릴 수 없는 빛이 진리에서 뿔어져 나오고, 그 빛은 주변을 가리고 있던 구름을 흩뜨려 사라지게 합니다.

진리의 주변에는 여러 알레고리가 등장하는데, 우선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이성과 철학이 진리의 베일을 벗기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성경책을 펼쳐든 신학이 무릎을 꿇고 진리에서 나오는 이성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학문의 여왕이었던 신학이 이성과 철학에 밀려난 듯합니다.

이어 기억과 고대와 현대의 역사가 있고, 그 옆에서는 옹크리고 얇은 역사가 시간을 받침대 삼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하학, 천문학, 물리학이 모여 있는데 각기 이를 상징하는 도구들을 들고 있습니다. 더 아래에는 광학, 식물학, 화학, 농학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과학에서 파생한 여러 기예와 직군이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이번에는 화면의 왼쪽을 보면 진리의 왼편에서 상상이 화환을 들고 진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다양한 장르의 시, 즉 서사시와 극시, 풍자시, 전원시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상상이 낳은 여러 가지 예술, 즉 음악과 회화, 조각, 건축이 보입니다.

당대의 학문과 예술 분야가 총망라된 듯한 <백과전서>의 표지 그림에는 지식 분야 사이의 위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등장한 수많은 학문과 예술 분야들은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맨 상단의 진리를 중심으로 나눠서 보면 오른쪽에는 과학, 왼쪽



도판 3 <백과전서>의 도판 예시, 인쇄공의 작업 모습

에는 예술 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진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기억과 이성, 상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의 분류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당시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이 세 가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즉 역사는 기억에서, 철학과 과학은 이성에서, 시와 예술은 상상력에서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 각 학문과 예술 분야가 서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두의 협력을 통해 진리는 빛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인류는 진보를 향해 나아가간다는 계몽사상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김용진의 Piano Forte

## 겨울 그리고 러시아 \*

### \* 영하 27도의 경험

2000년 9월 4일 유난히 어두웠던 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나의 첫 유학지다. 러시아의 첫 느낌은 ‘어둡다’, ‘무겁다’, ‘심각하다’ 그리고 ‘춥다’였다. 설레던 마음과 꼭 금의환향하리라는 다짐을 잊게 만들 정도였다. 낮은 환경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당시 러시아 말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떠남), ~스키, ~새키, 씨바~, 질까~. 여기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후회가 밀려왔다. ‘썰던’에 간다고 걱정하시던 할머니, 추운 곳에 간다고 두툼한 털옷을 사주셨던 선생님을 생각하며 기숙사에 짐을 풀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전장이 꽤나 높았다. 방바닥이 따뜻했던 한국과는 다르게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곳이라 어디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 채 적응도 하기 전에 입학 시험을 치러야 했다. 말로만 듣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우선 엄청난 건물 크기에 압도당했다. 학교 오른쪽에는 러시아 5인조 중 한 사람인 글린카의 동상이, 왼쪽에는 초대 교장인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 학교의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다. 위대한 작곡가들을 바라보며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았다.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시간만 생기면 아무 피아노에 앉아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연습에 매진했다. 입학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9월 중순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해 겨울은 정말 추웠다. 무려 영하 27도를 경험했다. 숨을 쉴 때마다 코 안에서는 ‘바사삭’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신발은 밑창이 다 얼어서 깨졌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립스키 코르사코프

### “과장 없이, 모든 영혼을 이 작품에 쏟아 넣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민작곡가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 받는 클래식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열정적이며 서정적인 그의 음악은 간혹 지나치게 심을 정도로 감정을 표출하고 강렬한 관현악의 색채가 도드라진다. “음악은 환영이 아닌 폭로다”라고 말했던 차이콥스키의 음악에는 그의 절절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교향곡 6번이다. 차이콥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작곡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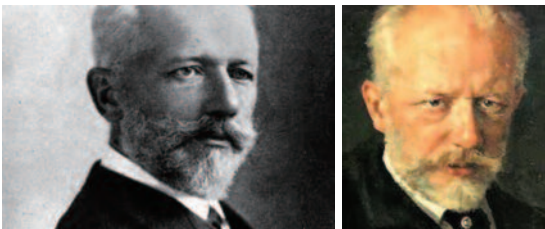
교향곡 6번 나단조, Op.74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그 스스로 “과장 없이, 모든 영혼을 이 작품에 쏟아 넣었다”라고 말했던 작품이다. 이 곡의 초연은 1893년 10월 28일, 러시아음악협회의 연주회에서 차이콥스키가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음악회였다. 음악회장은 청중들로 가득 찼고, ‘모든 영혼을 쏟아 넣어’ 작곡된 6번 교향곡에 큰 기대를 하며 들떠있었다.

### \* 탄식하는 슬픔으로

일반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빠르고 웅장하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악장이며, 모든 악기들이 총 출동하여 대미를 장식하는 악장이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6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매우 느리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하다. 4악장이 시작되자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야유를 보내는 사람까지 있었고, 연주가 종료된 후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왜 차이콥스키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작품, 마지막 악장에 ‘라멘토소(Lamentoso)’ 즉 ‘탄식하는 슬픔으로’ 라고 적어놓았을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초연하고 아흐레 뒤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고 만다. 무엇이 차이콥스키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 \* 비참

차이콥스키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다.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던 차이콥스키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차이콥스키

없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그 당시 차이콥스키와 동성연애를 즐겼던 상대는 바로 귀족의 자제 그리고 친구들이었던 법무성, 검찰청의 고위 관료들이었다. 차이콥스키가 법률학교 출신으로 러시아 법무성 서기관까지 올랐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동창들은 차이콥스키로 인해 자신들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비밀법정을 연다. 그리고 비밀법정을 통해 차이콥스키에게 비소가 담긴 물잔을 건넨다. 차이콥스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압박했던 것이다. 차이콥스키의 최후는 이토록 탄식할 정도로 슬펐다.

장례식이 끝나고 차이콥스키를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그의 마지막 6번 교향곡이 다시 연주되었다. 초연 당시 웅성대고 야유를 보냈던 청중들 그리고 혹평을 쏟아냈던 평론가들과는 달리 4악장 ‘라멘토소’가 연주되는 공연장은 온통 울음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차이콥스키를 떠나 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곡에 ‘비참’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마음이 참담하도록 슬프고 서럽다’는 뜻이다.

탄식과 슬픔, 낙담과 절망의 4악장. 비장한 바이올린의 합주로 시작하는 4악장의 선율은 깊은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소진한 듯 고요히 마무리된다. 운명을 받아들이다. 진정 희망은 없는 것일까?

### \* 러시아 5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면서 드디어 나는 차이콥스키와 동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러시아 유학 5년을 회상해 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눈보라를 뚫고 새벽 연습을 다녔던 일, 미용실에 갔다가 말이 통하지 않아 머리를 거의 뺏빳 깎았던 일, 스킨헤드족에게 공격을 당해 팔이 부상당한 일,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뛰어다녔던 일 등. 술한 세월을 닳고 닳아 움푹 패인 대리석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을 생각했다. 차이콥스키,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까지. 나에게 러시아 유학생들은 인생의 한 빙벽을 오르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정상에 오르냐 혹은 미끄러져 죽느냐 하는 절박한 것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겨울은 그때, 러시아의 겨울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글/ 김용진



#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 2016 국악한마당

공연정보 12, 1(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국악협회 울산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천년만세, 흥보가 中 박타령, (국악경연대회 장관상 수상자-일반부) 아쟁산조, 민요연곡 (양산도, 풍년가, 경북공타령), 가야금병창(호남가, 신평년가), 민요연곡(산타령, 방아타령), 삼도사물놀이

## 남성합창단 “울사네” 제6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남성합창단 울사네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남성, 여성, 혼성합창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합창과 기악곡 등을 연주

## 타악퍼포먼스 새암 제5회 정기공연

공연정보 12, 4(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타악퍼포먼스 새암  
 입 장 료 R석 5,000원  
 공연개요 타고는 퓨전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도이며,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서양음악과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전통음악에 기초하여 다양한 노래와 춤이 곁들여 지기도 하고 곡에 따라 이야기가 있는 극의 형태로도 연출된다.

## 무용 세계속의 암각화를 만나다.

공연정보 12, 8(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임연희무용단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의 역사를 암각화를 통하여 테마별로 3세개의 과정을 시간적 공간으로 나누어 역사를 통한 인간의 삶의 과정을 신체움직임의 정중동으로 의인화 하고자 한다.

## 한나래합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정보 12, 11(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나래합창단  
 입 장 료 R석 10,000원  
 공연개요 사랑과 그리움 이라는 테마로 한국가곡, 외국가곡, 가요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와 가악 연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다양성을 보여줌.

## 구립교향악단 제53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2(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 울산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18(일)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울산 남구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2(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남구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로 여러 합창단과 연합하여 한국 가곡 합창축제 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정보 12, 24(토) 14:00, 16:00  
 12, 25(일) 11:00, 14:00, 16:00 소공연장  
 공연주최 J엔터컴  
 입 장 료 R석 30,000원  
 공연개요 스쿠루지와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어린이 뮤지컬

## 제16회 삼신관악부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7(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삼신관악부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민들에게 무료공연으로 쉽게 관람의 기회제공.

## 제3회 울산 배꽃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28(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창단 이후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킴.

## 전통 창극 흥부, 놀부전

공연정보 12, 29(목)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리랑예술단  
 입 장 료 R석 15,000원  
 공연개요 전통창극 흥부, 놀부전을 각색 하여 풀어낸 내용



#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 음악으로의 초대

공연정보 12, 30(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아르모니아  
 입장료 무료  
 공연개요 어린이의 맑고 순수한 소리를 통하여 듣는 세계 각국이 유명한 가곡 or 민요들은 우리의 마음에 진한 향수를 일으키며, 어린이와 어른이 공감하는 감성의 만남을 이끌어 줄 것이다.

## 제7회 울산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2, 31(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심포닉밴드  
 입장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심포닉밴드가 추구하는 고난도의 기교로 전문성을 보여주기도하는 세간에 잘 알려진 음악을 통하여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 울산 시민 정서 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한다.

## [기획공연] 뒀란

공연정보 12, 7(수) 19:30 소공연장  
 12, 21(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10,000원  
 공연개요 지역의 아티스트들과 중앙의 게스트가 함께 만들어 가는 수준 높은 음악 공연 중심의 무대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 제45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일요화가회  
 전시내용 순수 아마추어 미술동호회인 울산일요화가회 정기전으로, 울산 근교의 산과 들, 태화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현장 사생 유화작품 총 50여점 전시

## 호연생활민화연구원 회원전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2,3전시장  
 전시주최 호연생활민화연구원  
 전시내용 민화를 공부하는 회원 작품 전시회로 일반한지, 염색한지, 일반천, 천연 염색천, 옷종이 등 다양한 재료에 채색한 생활 민화, 소품 등 총 150여점 전시

## 제16회 뉴비전사진동호회

전시기간 11, 30(수)~12, 5(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뉴비전사진동호회  
 전시내용 문화재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역사성과 소중함, 아름다움, 우리 문화에 깃든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작품 총 30여점 전시

## 제9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12, 7(수)~12, 12(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포토라이프클럽  
 전시내용 24명 회원의 순수창작, 기록 사진, 응용창작 사진작품 등 총 50여점 전시

## 숨사모 바라보다전

전시기간 12, 7(수)~12, 12(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숨사모  
 전시내용 자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생태자연, 풍경 등 사진작품 총 40여점 전시

## 제15회 울산미사랑작가회전

전시기간 12, 7(수)~12, 12(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사랑작가회  
 전시내용 회원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그림을 한 눈에 비교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소소작품 총 30여점 전시

※전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 제16회 울산사생회 정기전

전시기간 12. 7(수)~12. 12(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생회  
 전시내용 자연을 소재로 화면에 담는 울산사생협회의 정기전으로, 회원들이 지난 1년간 현장사생을 통해 작업한 실경 위주의 수채화, 유화작품 총 40여점 전시

## 제6회 울산도시디자인 공모전

전시기간 12. 14(수)~12.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도시창조과  
 전시내용 수상작 30점,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작품, 구군 도시디자인 사업 등

## 제18회 초등사진교육연구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14(수)~12.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초등사진교육연구회  
 전시내용 초등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사진교육연구회의 18회 이야기 '내 마음의 만남' 전으로, 마음속에 그려오던 동경 또는 이미지를 표출하는 사진 작품 총 40여점 전시

## 제6회 양희숙 개인전

전시기간 12. 14(수)~12.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인(양희숙)  
 전시내용 태화강 대숲의 때 까마귀의 군무와 길 찾기는 오랜 시간동안 작업 속에 그림자처럼 숨어 있던 형상성 보다는, 교감하는 이들의 감성에 대한 태도를 제기한 작품 총 20여점 전시

## 울산미협문인화 분과전

전시기간 12. 14(수)~12. 19(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협문인화분과  
 전시내용 문인화의 다양성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 선보이는 기획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 개개인의 특색 있는 문인화 작품 총 44여 점을 전시

## 제2회 태화강포토박스 회원전

전시기간 12. 21(수)~12. 26(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태화강포토박스  
 전시내용 회원 중심의 자유작으로 풍경, 인물, 자연 등 사진작품 총 80여 점 전시

## 화우회 회원전

전시기간 12. 21(수)~12. 26(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화우회  
 전시내용 울산 근교 풍경을 배경으로 스케치한 개성이 뚜렷한 회원 작품 총 40여점 전시

## 동구의 방어진 사진전

전시기간 12. 21(수)~12. 26(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동구  
 전시내용 동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방어진의 옛 모습과 현재 생존하는 원주민의 삶과 생활, 적산가옥 등을 기록한 사진 작품 총 30여점 전시

## 제5회 율리시스 사진전

전시기간 12. 21(수)~12. 26(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율리시스  
 전시내용 '잊혀져 가는 우리 삶의 흔적'이란 주제로 현대화 물결에 우리 고유의 멋과 정서가 사라져 가는 것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 총 40여점 전시

## 제11회 프롤로그 정기전

전시기간 12. 28(수)~1.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프롤로그  
 전시내용 개성이 강한 5인이 모여 내재된 감성을 표출하며 걸어온 10여 년을 되돌아보며 작품 총 50여 점 전시

## 제3회 울산디카동우회 사진전

전시기간 12. 28(수)~1. 2(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디카동우회  
 전시내용 울산 디카동우회 빛무리 풍경이 있는 거리 사진전으로, 울산 인근 빛무리 풍경이 있는 거리를 찾아다니며 촬영한 작품 총 55여 점 전시

## 김호연 사진전

전시기간 12. 30(금)~1. 4(수),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김호연)  
 전시내용 초대전 및 개인전을 통하여 펼쳐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는心象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 총 60여점 전시

# 12

2016  
December

공연일정

## Performances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소 2016 국악한마당 (19:30)	2 소 남성합창단 "울사네"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3
4 소 타악퍼포먼스 새암 제5회 정기공연 (17:00)	5	6 소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A Winter Story (20:00)	7 소 뒤란 (19:30)	8 소 무용 세계속의 암각화를 만나다 (19:30)	9 소 WORLD ARTIST SERIES IV '니콜라이 데미덴코' Piano (20:00)	10 소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34회 정기공연 2016 송년음악회 (17:00)
11 소 한나래합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 (17:00)	12 소 구립교향악단 제53회 정기연주회 (19:30)	13	14	15	16 소 울산시립무용단 2016 송년공연 『춤, 해후 邂逅』 (20:00)	17 소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4회 정기공연 2016 송년음악회 (17:00)
18 소 울산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19	20 소 12월 모닝콘서트 리처드 로 & 교회안의 JAZZ TALK CONCERT (11:00) 소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크리스마스 캐롤의 향연 (20:00)	21 소 뒤란 (19:30)	22 소 울산 남구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19:30)	23 소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 2016 송년음악회 (20:00)	24 소 크리스마스 캐롤 (14:00, 16:00)
25 소 크리스마스 캐롤 (11:00, 14:00, 16:00)	26	27 소 제16회 삼신관악부 정기연주회 (19:00)	28 소 제3회 울산 배꽃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29 소 전통 창극 흥부, 놀부전 (19:00)	30 소 음악으로의 초대 (19:30)	31 소 제7회 울산 심포닉밴드 정기연주회 (19:30)

- 대 대공연장
- 소 소공연장
- 야 야외공연장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2016  
December

전 시 일 정

- ① 제1전시장
- ② 제2전시장
- ③ 제3전시장
- ④ 제4전시장
- 상 상설전시장
- 아 야외전시장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45회 울산일요화가회 회원전 ~12. 5(월)</li> <li>② ③ 호연생활민화연구원 회원전 ~12. 5(월)</li> <li>④ 제16회 뉴비전사진동호회 회원전 ~12. 5(월)</li> </ul>			
4	5	6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9회 포토라이프클럽 회원전 ~12. 12(월)</li> <li>② 숲사모 바라보다전 ~12. 12(월)</li> <li>③ 제15회 울산미사랑 작가회전 ~12. 12(월)</li> <li>④ 제16회 울산사생회 정기전 ~12. 12(월)</li> </ul>			
11	12	13	14	15	1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6회 울산도시디자인 공모전 ~12. 19(월)</li> <li>② 제18회 초등사진교육 연구회 회원전 ~12. 19(월)</li> <li>③ 제6회 양희숙 개인전 ~12. 19(월)</li> <li>④ 울산미협문인화 분과전 ~12. 19(월)</li> </ul>			
18	19	20	21	22	2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2회 태화강포토박스 회원전 ~12. 26(월)</li> <li>② 화우회 회원전 ~12. 26(월)</li> <li>③ 동구의 방어진 사진전 ~12. 26(월)</li> <li>④ 제5회 율리시스 사진전 ~12. 26(월)</li> </ul>			
25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제11회 프롤로그 정기전 ~1. 2(월)</li> <li>④ 제3회 울산디카동우회 사진전 ~1. 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김호연 사진전 ~1. 4(수)</li> </ul>	

# 롯데호텔 울산·롯데시티호텔 울산 간절곶 해맞이 패키지



**LOTTE HOTEL ULSAN** (5성급)

T 052.960.1000

**Welcome 2017!**

₩ 150,000 ~

- 슈페리어룸 (더블/트윈)
- + 레이트체크아웃 14:00까지 (가능시)
- + 간절곶 배차 서비스 (픽업&샌딩, 사전접수 必)
- + 해맞이 먹거리 세트 (핫드링크, 떡, 손난로)
- + 와인 1병 (파스칼토소브뤼 스파클링 와인)
- + 조식 2인 추가 시 20,000원

- \* 추가혜택
- 수영장, 사우나 무료제공
- 식음업장 10%할인제공
- 룸서비스 10%할인제공
- 엑스트라 베드 및 침구류 무료제공 (가능시)
- 패밀리트윈 업그레이드 시 20,000원
- 조식 추가 시 20,661원 (성인), 14,876원 (소인)

\*상기 금액에 21%의 세금 및 봉사료가 가산됩니다.

**LOTTE HOTEL CITY ULSAN** (4성급)

T 052.960.1000

**Happy New Year 2017!**

₩ 115,000 ~

- 스탠다드룸 (더블/트윈)
- + 간절곶 배차 서비스 (픽업&샌딩, 사전접수 必)
- + 해맞이 먹거리 세트 (핫드링크, 떡, 손난로)
- + 웰컴 드링크 2잔
- + 조식 2인 추가 시 20,000원

- \* 추가혜택
- 조식 추가 시 16,364원 (성인), 11,818원 (소인)
- 휘트니스 무료이용

\*상기 금액에 10%의 세금 및 봉사료가 가산됩니다.

#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문의 : 226-8242

## 협약점 현황

### 롯데호텔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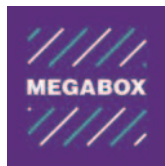
품격있는 휴식과  
집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최상의 평온함을  
세계적인 도시들의 중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비교할 수 없는 명성과 세심한 서비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이용금액 **15~50%** 할인(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 시 사전 문의 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롯데호텔 울산	객실	슈페리어(DB/TW) 150,000원(부가세 등 포함)
	페닌슐라(뷔페) 도림(중식)	주중, 주말 상시 20% 할인 (식사, 음료)
	델리카한스 (베이커리)	케이크 및 빵 15% 할인 ※ 19:30 이후 케이크 30%, 빵 50% 할인
롯데시티호텔 울산	객실	스탠다드(DB/TW) 88,000원(부가세 등 포함)
	C-CAFE(뷔페)	주중, 주말 상시 15% 할인 (식사, 음료) ※ 가족모임(돌잔치 등) 제외

### 메가박스(울산점)



전 좌석 가죽시트로 쾌적한 영화 관람이 가능하며  
최적의 관람 환경을 자랑하는 PREMIUM관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가박스가 당신의 꿈을 개봉합니다!

✔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 밀레(달동점)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달동점은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항상 편안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 정상가의 10% 할인(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 협약점 현황

###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커피, 그 이상의 가치!  
전용 주차장까지 완비된  
120석 규모의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카페베네만의 깊고 풍부한 아메리카노 향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 메뉴 1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단팥빵부터 고로케, 슈러스 그리고 조각 케이크까지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를 아메리카노와 함께  
매장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좋은 녹차 롤,  
딸기, 티라미수 케이크도 있습니다.

✔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 THE ALLEY COFFEE(엘리 커피)



최상의 재료와 맛을 보장합니다.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 명품 아메리카노와  
프랑스산 천연향 시럽을 사용한 에이드를  
벨기에 명품 수제 와플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 백스 쿠치나



### BAEK'S CUCINA

제주롯데호텔 12년 경력의 셰프가 만들어 낸  
세상에 없던 레시피,  
한 번 맛보면 빠져드는 그 맛!  
극강 비주얼의 매콤한 딱새우 링귀니 파스타를  
고르곤졸라 피자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이용금액 5% 할인 (음료메뉴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태화동주민센터 앞 문의 | 052-243-3334

### 쉼터



울산문화예술회관 내 레스토랑, 쉼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돈까스와 한식은 물론  
다양한 커피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모임, 기념회 등 단체행사도 가능합니다.

✔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시동 1층 문의 | 052-274-4393

### 소풍가



맛과 정성을 다하는 안동찜닭 전문점!  
웃음이 넘치는 집 소풍가는 국내산 생닭과 신선한 재료로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착한 음식문화를 추구하는 소풍가

✔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 쉼터와 소풍가는 10. 1.부터 이용 가능

## 협약점 이용방법

유료회원께서는 하단의 이용방법을 숙지 후 협약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회원종류 : 일반, 가족, 청소년, 단체회원



### 스마트폰 사용자

화면 예시



1

네이버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검색 후 주소 클릭

2

마이페이지 클릭

3

마이페이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4

로그인 후 유료회원 여부확인

유료(일반)회원 / 유효기한 '17. 1. 21.'

※ 유의사항

-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회관(052-226-824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캡처화면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스마트폰 미사용자

회관 방문 후 인식증 발급 및 인식증 사용 (발급비용 없음.)

최대 20%

## 협약점 안내 하나 더

### Home plus



회관이 지역 소재 업체와 업무 협약 체결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의 패밀리 카드 소지자와  
메가박스 울산점의 멤버십 회원(메가티즌),  
밀레 달동점 구매 영수증(공연일 기준 3개월 이내) 소지자  
께서는 회관 주관 공연 예매 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별로 할인율이 다르므로 예매 시 사전 문의바랍니다.



# ARTS FRIEND 회원 가입 안내

## 01 울산문화예술회관의 『ARTS FRIEND』가 되려면,

구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일반회원	만 19세이상	2만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만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만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만원(1명)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www.ucac.or.kr](http://www.ucac.or.kr)

## 02 『ARTS FRIEND』가 되시면,

### 월 1회 발행되는 『ARTS FRIEND』 우수 및 각종 공연정보 안내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모닝콘서트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 협약점 이용시 할인

## 03 공연을 즐기는 TIP!

###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 100% 즐기는 법

- 1 문예정보지 『Arts Friend』로 어떤 공연을 볼 것인지 선택
- 2 예매가 오픈되면 보내주는 문자 확인 후, 조기예매 해서 좋은 자리 잡기
- 3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즐기기
- 4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입장권 구매하기



*Happy  
Christmas*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사랑, 행복,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